

2025.02.25.(화) 증권사리포트

한국가스공사

기저효과에 일회성 이익까지

[출처] 하나증권 유재선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55,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한국가스공사 목표주가 55,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가스요금 경감손실이 약 2,100억원 가량 일회성 이익으로 반영되었고 통상 4분기 발생하는 정산손익 영향이 이번에는 유의미한 규모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민수용 미수금은 아직 증가 추세지만 이자비용을 제외한 원금은 감소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아시아 LNG 현물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원금 증가 여지가 있으나 과거처럼 급증하는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25년 기준 PER 2.7배, PBR 0.27배다.

4Q24 영업이익 11,763억원(YoY +122.1%)으로 컨센서스 상회

4분기 매출액은 10.0조원으로 전년대비 5.9% 감소했다. 가스가격은 전년대비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판매량이 도시가스용 -6.8%, 발전용 -7.6%로 감소하면서 외형이 부진했다. 영업이익은 1.2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22.1% 증가했다. 별도는 요금기저와 적정원가 정산, 총괄원가 차감요인 해소 등 여러 기저효과와 일부 일회성 이익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운전자본 정산의 경우 예산 대비 판매량 둔화와 판매가격 하락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났지만 2023년 대비 마이너스 정산 규모가 줄어들어 증익 요소로 작용했다. 2023년 총괄원가 차감 요인이었던 입찰담합 승소금도 주요 기저효과로 반영되었다. 2023년에 미반영된 취약계층 가스요금 경감손실이 일회성 이익으로 인식되었다. 해외는 호주 GLNG와 이라크 주바이르 흑자전환, 모잠비크 KGM FLNG 생산 정상화에 따른 이익 성장 등에 크게 개선되었다. 호주 Prelude는 LNG Cargo 인식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세전이익은 해외 자원개발 대여금 손상 인식에도 영업이익 성장과 전년동기 대규모 손상차손 기저효과로 흑자전환했다.

배당은 아직 미확정. 높아진 이익 체력 감안 장기 접근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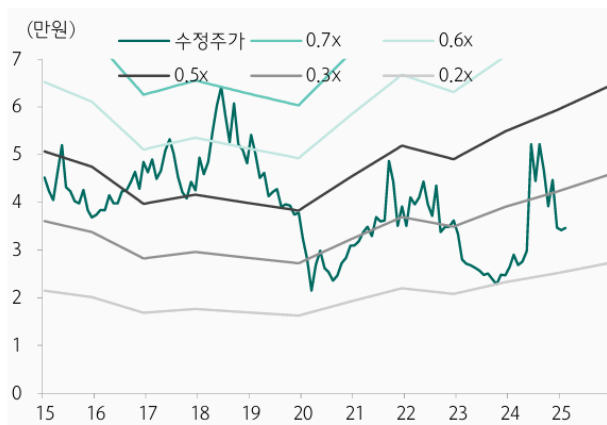
2024년 별도 순이익은 7,934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기말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대규모 외화환산손실과 해외 자원개발 손상차손 등 일회성 성격의 비용 인식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 통상 실적과 함께 공개되던 배당의 경우 발표가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며 곧 시행 여부와 규모가 확인될 예정이다. 2025년 실적은 모잠비크 KGM 증익, 적정투자보수 증분을 감안해도 일회성 요인 제거와 정산손익 영향 감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다소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조정된 눈높이에서도 유의미한 배당수익률이 기대되고 있어 장기적인 접근이 유효한 시점으로 간주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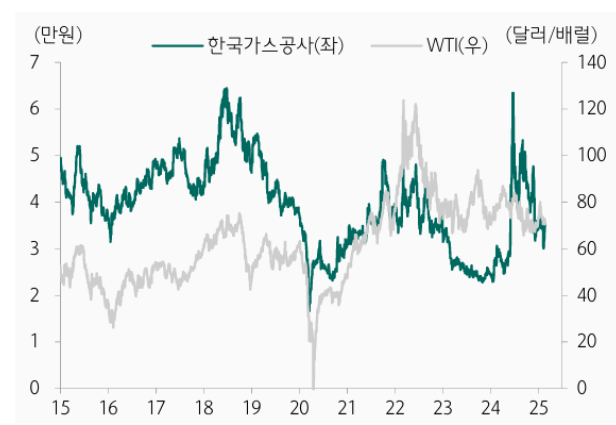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2	2023	2024P	2025F
매출액	51,724.3	44,556.0	38,388.7	37,771.6
영업이익	2,463.4	1,553.4	3,003.3	2,724.8
세전이익	1,945.2	(861.9)	1,637.6	1,582.1
순이익	1,493.1	(761.2)	1,146.7	1,186.6
EPS	16,174	(8,246)	12,422	12,854
증감율	57.04	적전	흑전	3.48
PER	2.24	(3.00)	2.79	2.70
PBR	0.32	0.23	0.29	0.27
EV/EBITDA	11.45	12.36	8.30	8.43
ROE	15.67	(7.68)	11.22	10.53
BPS	112,005	105,937	118,515	128,154
DPS	0	0	3,400	2,800

도표 2. 한국가스공사 12M Fwd PBR 추이



자료: 한국가스공사, 하나증권

도표 3. 한국가스공사 주가와 유가 추이



자료: 한국가스공사, 하나증권



이마트

2027년 영업이익 1조원 가능할까?

[출처] IBK투자증권 남성현 애널리스트

2027년 영업이익 1조원 제시

이마트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7년 영업이익 1조원 달성 중장기 가이드스를 밝힘. 가능 여부를 현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근접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보고 있어 긍정적인 시각
 긍정적 생각 이유는 1) 2025년 하반기 G마켓 지분법 전환(674억 원), 2) 통합매입 효과 (약 1,000~2,000억 원), 3) 신세계건설 적자 완화(약 1,400억 원), 4) 프라퍼티 회계기준 변경(약 600억 원), 5) SSG.COM 수익성 개선(약 700억 원), 6) 인건비 개선(약 600억 원) 등
 지난해 1회성 비용을 반영한 실질 영업이익은 약 1,600억 원 수준으로, 개선 가능성 높은 실적 감안시 2027년 영업이익 6,600~7,600억 원까지 증가 전망
 주의할 부분은. G마켓 적자폭 축소와 프라퍼티 이익 증가분은 영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약 1,200억 원은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 1조원까지 달성은 모르겠지만, 실적 개선 근거 충분

2025년 속닥컴 실적 개선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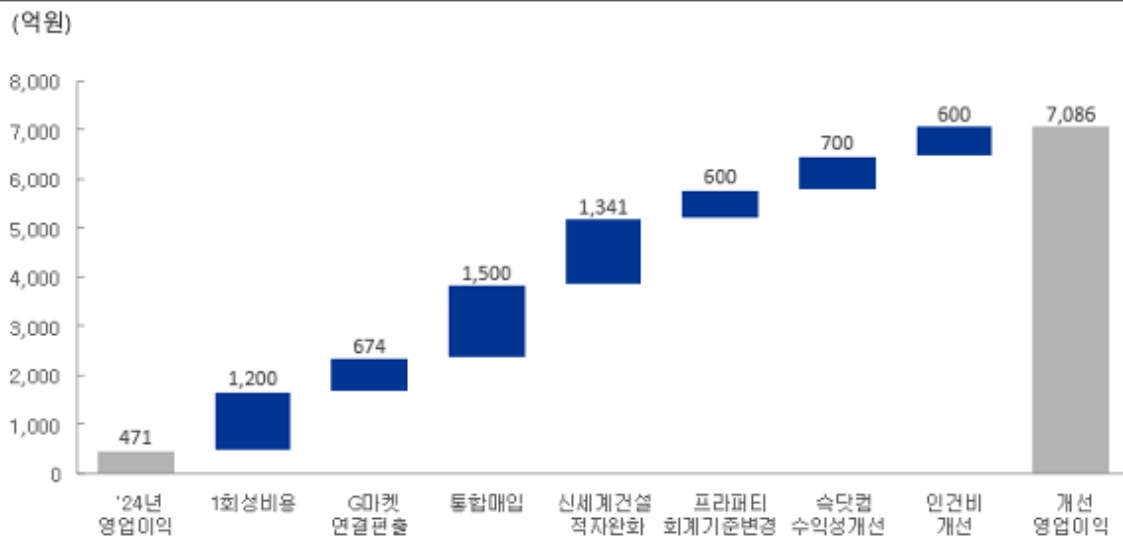
CJ대한통운을 통한 물류 공급 본격화 및 대구, 부산, 충청 등 영역이 확장. 하반기 네오물류센터 위탁물류 전환이 마무리로 하반기 이익 성장이 급격화

실적 추정치 변경에 따라 목표주가 9.5만원 상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29,332	29,472	29,021	29,258	29,361
영업이익	136	-47	47	352	399
세전이익	1,252	-212	-606	266	466
지배주주순이익	1,029	-89	-298	157	311
EPS(원)	36,924	-3,196	-10,675	5,626	11,170
증가율(%)	-34.5	-108.7	234.0	-152.7	98.5
영업이익률(%)	0.5	-0.2	0.2	1.2	1.4
순이익률(%)	3.4	-0.6	-2.0	0.7	1.2
ROE(%)	9.6	-0.8	-2.7	1.5	2.9
PER	2.7	-24.0	-5.9	13.9	7.0
PBR	0.2	0.2	0.2	0.2	0.2
EV/EBITDA	8.2	8.6	8.1	6.2	5.4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이마트 영업이익 개선 가능 폭 추정





코스메카코리아

2025년 가이드런스 바라표 : 성장 기회는 있다

[출처] 유안타증권 이승은 애널리스트

4Q24 Review: 영업이익 시장기대치 소폭 하회 전망

24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283억 원(+5% YoY), 영업이익 133억 원(-11% YoY)으로 영업이익 시장기대치 190억 원을 30% 하회하였다. 이는 ① 잉글우드랩 미국 및 중국 법인의 적자, ② 제품 믹스 변화로 인한 원가율 상승, ③ 판관비 증가에 기인한다. 뉴저지 법인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중국 법인은 저단가 제품 생산으로 원가 부담이 커졌다. 또한, 쿠션 제품 비중 확대와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둔화되었다.

2025F 가이드스: 매출액 +15% YoY, 영업이익률 12%

동사는 2024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다소 보수적인 2025년 가이드스를 발표했다. 당사는 동사 가이드스를 반영하여 목표가를 65,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매출 성장률: 연결 기준 14~15%, 한국법인 15%, 잉글우드랩 10%, 중국법인 10% 내외

영업이익률: 연결 기준 12% 내외, 한국법인 13.5% (청주 임대 공장 투자 비용 50억원 반영), 잉글우드랩 11.7% 내외, 중국 법인 BEP 목표

2024년 하반기 미국 FDA는 동사 OTC 생산 시설을 실사했으며, 음성 공장과 잉글우드랩 인천 공장이 이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에서 OTC 선스크린 제조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2024년 PPA 비용 종료로 순이익 개선이 기대되며, 2025년 3월부터 청주 하이드로겔 생산 라인이 가동되어 신규 매출원이 확보될 예정이다.

잉글우드랩 지분을 55%(특수관계자 지분 포함)까지 확대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중장기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외화 환산 이익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잉글우드랩의 매출 감소와 인건비 부담으로 2025년 1분기 실적 역성장이 예상된다.

동사 주가는 잉글우드랩 실적 회복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법인의 견조한 성장, PPA 비용 소멸, 하이드로겔 신규 생산라인 가동 등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단기 조정을 거친 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추가적인 실적 개선과 글로벌 시장 확장 여부가 주가 상승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3,994	4,707	5,243	5,900
영업이익	104	492	604	734
지배순이익	27	223	347	440
PER	44.7	10.3	17.0	11.5
PBR	0.8	1.4	2.9	2.0
EV/EBITDA	10.1	5.7	9.3	6.9
ROE	1.8	14.1	18.5	19.3



동아쏘시오홀딩스
비상장 자회사의성장성 변화에 주목한다
 [출처] 상상인증권 하태기 애널리스트
 2024년 4분기 연결 영업실적 고성장

동아쏘시오홀딩스의 2024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한 3,469억원, 영업이익은 35.7% 증가한 217억원을 기록했다. 비상장 자회사 동아제약과 용마로직스의 실적이 대폭 성장한 영향이다.

동아제약, 에스티젠바이오, 용마로지스가 성장하고 있다

2025년에는 비상장 주요 자회사들의 성장 폭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동아제약 4분기에 매출은 7.8% 성장한 1,651억원, 영업이익은 65.4% 증가한 227억원을 기록했다. 박카스부문은 3%의 성장을 했지만, 2025년 3월에는 10~11%의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성장 폭이 다시 높아질 것이다. 4분기 일반의약품은 피부외용제(노스카나 등) 138억원(YoY+ 40.8%)의 고성장으로 전체 15.9% 증가한 449억원을 기록했다. 생활건강에는 비타민제 오쏘몰(+8%)이 성장하고, 화장품에서 파티온(+29.5%)이 높은 성장을 진행 중이다(표1). 2025년에도 피부 외용제와 화장품부문의 고성장이 동아제약의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에스티젠바이오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스텔라라 BS 이물도사의 미국, 유럽 품목 허가에 따라 유럽향 상업화 매출이 발생, 2024년 연간 14.4% 성장한 589억원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최초로 연간 흑자 17억원을 기록했다. 스텔라라 BS 이물도사에 대한 전용 생산 site에 대해 2024년 9월 EMA, 10월에 미국 FDA로부터 모두 cGMP 인증을 받았다. 이물도사는 유럽에는 국가별 순차적으로 발매 중이며, 미국은 오리지널사와의 특허 합의에 의해 2025년 5월 발매 예정이다. 따라서 2025년부터 상업화 물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셋째, 용마로지스의 2024년 매출이 화장품/식품 물류 증가로 12.5% 성장한 4,004억원, 매출증가와 물류 단가 조정, 운용 효율화로 영업이익도 크게 성장 중이다.

Financial Data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2	1,015	38	11	1,757	57.8	10.1	0.7	1.1	1.5
2023	1,132	77	58	9,134	11.1	7.9	0.6	5.8	2.2
2024E	1,333	82	68	10,944	8.8	12.7	0.6	6.6	1.8
2025E	1,493	95	75	11,936	8.1	7.4	0.5	6.8	1.8
2026E	1,659	119	93	14,907	6.5	6.4	0.5	8.0	1.8

자료: KIFRS연결기준, 상상인증권



HL홀딩스

강화된 주주환원정책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배당수익률 5.6%. 기보유 자기주식 47만주 소각+매년 100억원 소각할 예정

HL홀딩스에 대한 투자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4.5만원을 유지한다. 산업수요 둔화로 사업 실적은 정체되었지만, 지주 부문에서 자회사 HL만도의 회복에 따른 지분법이익 및 로열티 수입의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P/B 0.33배 수준인데, 주주환원정책이 강화되면서 2025년 중 5.6%의 배당수익률(주당 2,000원)과 292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포함해 총 13.9%의 주주환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강화된 주주환원정책

HL홀딩스는 2월 7일 강화된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 2025년 주주환원은 기존 주주환원정책에서 일정과 규모가 개선되었는데, ① 주당 배당금은 기존과 같이 2,000원을 유지하지만, ② 자기주식 매입/소각은 이미 2024년 11월 기준 '3년 200억원'에서 '2년 200억원'으로 일정을 당긴다고 발표했고(2024년 70억원, 2025년 130억원), ③ 이번에 추가된 내용으로 기보유 중인 자기주식 47만주(시가 162억원 상당)를 2월 내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2027년 주주환원정책도 발표했는데, ① 주당 배당금은 최소 2,000원 이상을 유지하고, ② 2026년~2027년 2년간 총 200억원을 분할하여 자기주식 매입/소각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는 '매년 주당 2,000원 이상 배당+100억원 상당의 자기주식 매입/소각'의 기초를 유지하되, 2025년에는 특별 자기주식 소각이 추가된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주주환원정책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HL홀딩스의 기대 배당수익률은 5.6%이고, 자기주식 매입/소각을 포함한 총 주주환원 수익률은 2025년 기준 13.9%, 2026년 이후로는 8.4% 수준이다.

2025년 보수적인 매출액 가이드스 제시. 주차로봇 상용화의 원년으로 설정

HL홀딩스의 2024년 매출액/영업이익은 1.37조원/901억원(영업이익률 6.6%)을 기록했는데, 2025년 매출액 전망으로 1.34조원(-2%)을 제시했다. 산업수요 둔화를 감안해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인데, 영업이익률은 전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장기 계획으로는 자체사업 강화 및 로봇틱스 사업을 제시했다. 자체사업 중 물류에서 미국 내 3PL을 확대하고, 해외 AM에서는 서유럽 시장의 진출과 브레이크/서스펜션 등 고수익 제품의 강화, 그리고 인도/멕시코 등으로부터의 글로벌 소싱 등을 목표를 제시했다. 로봇틱스 사업에서는 2025년을 주차로봇 상용화의 원년으로 설정했다. 신설 자회사인 HL로봇틱스와 함께 지난해 인수했던 스탠리로봇틱스가 각자 사업을 진행하는데, 합산 매출액 목표로 2025년 65억원, 2026년 213억원, 2027년 429억원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지자체/호텔/백화점 등을, 해외에서는 공항 등을 우선 고객으로 목표하고 있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277.1	1,285.5	1,370.9	1,338.0
영업이익	85.8	92.2	90.1	87.0
세전이익	12.9	61.4	24.7	55.5
순이익	3.1	50.5	15.0	44.7
EPS	296	4,910	1,478	4,728
증감율	(97.08)	1,558.78	(69.90)	219.89
PER	103.89	6.78	23.17	7.51
PBR	0.31	0.33	0.33	0.33
EV/EBITDA	8.08	8.31	8.67	8.97
ROE	0.31	5.01	1.48	4.39
BPS	98,176	101,279	102,855	107,615
DPS	2,000	2,000	2,000	2,000

도표 4. 스탠리로보틱스의 주차로봇



자료: HL홀딩스

도표 5. HL그룹의 구조



자료: HL홀딩스



삼성생명

실적 변동성은 아쉽지만 여전히 유효한 투자포인트

[출처] 키움증권 안영준 애널리스트

2024년 연간 지배순이익 11% (YoY) 증가한 2.11조원

2024년 4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85% (YoY) 감소한 647억원으로 컨센서스와 추정치를 각각 71%/78% 하회했다.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비용이 다수 반영된 영향이다. 2024년 연간 지배주주순이익은 11% (YoY) 증가한 2조 1,068억원을 기록했다.

계리적 가정 변경으로 비용 대거 반영. 일회성 요인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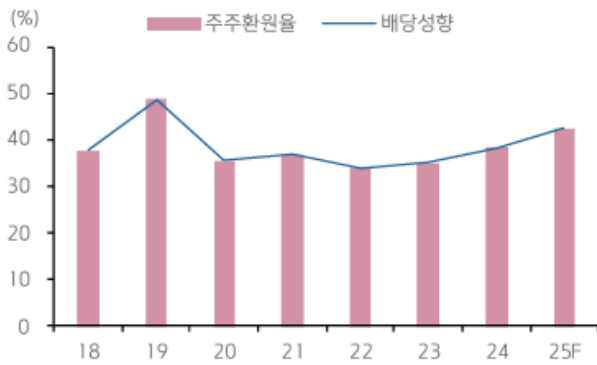
삼성생명의 보험이익은 -6,451억원을 기록하며 크게 부진했다(vs. 4Q23 2,425억원). 해지계약 회계처리 방법 변경의 영향으로 CSM 상각액은 전년동기대비 800억원 감소한 3,008억원을 기록했다.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금예실차는 전년동기대비 828억원 감소한 -810억원이었으며, 사업비예실차는 사내복지기금 조성 및 성과급 지급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069억원 감소한 -2,081억원이었다. 그외 보험손익은 전년동기대비 6,173억원 감소한 -7,364억원을 기록했는데, 손실부담계약비용으로는 사망률 개선에 따른 유배당 상품 손실 전환이 약 3,000억원, 해지계약 회계처리 방법 변경이 추가로 약 1,200억원 발생했으며 가정 변경에 따라 발생사고부채 증가에 따른 비용이 약 1,700억원 반영된 영향이다. 보험이익에 반영된 비용 중 일회성으로 판단되는 요인은 약 7,800억원이며, 가정 변경에 따른 보험금예실차 회복 및 유배당 상품 손실 지속(연간 약 2,000~3,000억원 예상) 등을 감안하면 분기 경상적인 보험이익은 3,000억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이익은 해지계약 회계처리 방법 변경 등으로 보험금융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485% (YoY) 증가했다. 연말 예상 K-ICS 비율은 14%p 감소한 180%이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40,000원, 업종 Top Pick 유지

급격히 커진 실적 변동성은 아쉬우나, 1) 여러 비용 반영에도 연간 두 자릿수의 증익을 기록했으며, 2) 과거보다 배당수익률 수준은 현저히 높은 모습이며, 3) 보유 중인 10%의 자기주식 및 지배구조 관련 추가적인 기대감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 높아진 배당수익률 및 보유한 계열사 지분 등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다. 업종 내 최선호주로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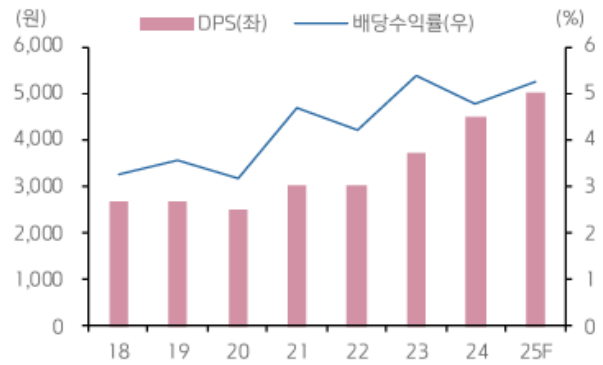
(십억원, 배)	2023	2024P	2025E
보험이익	1,448.2	536.6	1,134.3
투자이익	(23.7)	1,000.9	557.0
영업이익	1,424.8	1,542.9	1,691.3
세전이익	1,681.2	1,821.3	1,947.2
당기순이익	1,382.9	1,486.9	1,566.0
ROE	4.4	5.5	6.5
ROA	0.6	0.7	0.7
EPS	6,915	7,435	7,830
BPS	221,593	163,690	162,815
PER	7.3	9.0	9.0
PBR	0.3	0.6	0.6
DPS	3,700	4,500	5,000
배당수익률 (%)	5.4	4.7	5.2

주주환원율과 배당성향



자료: 삼성생명,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DPS와 배당수익률



자료: 삼성생명,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생명의 장기 배당수익률 추이



자료: 삼성생명,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화생명

실적은 양호했으나 여전한 부담 요인들

[출처] 키움증권 안영준 애널리스트

연간 순이익 17% (YoY) 증가

2024년 4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54% 증가한 1,360억원으로 컨센서스 23% 상회, 추정치 7% 하회했다. 보험손익에서 계절성 요인 및 계리적 가정 변경 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보험금융손익 개선으로 투자이익도 개선되었다. 연간 순이익은 17% (YoY) 증가한 7,206억원이었다.

신계약 호조 지속, 향후 K-ICS 비율 관리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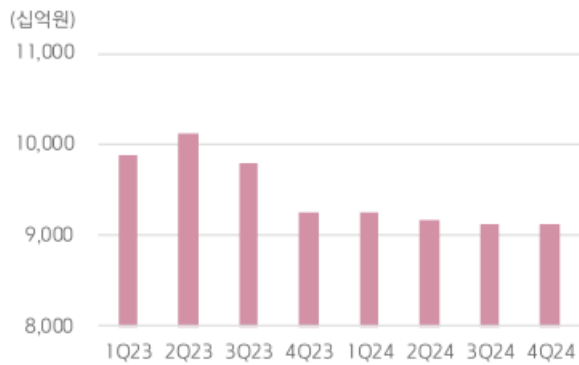
한화생명의 보험이익은 45% (YoY) 증가했는데, CSM과 RA 상각액이 견조한 수준을 이어간 동시에 손실 부담계약비용이 전년동기대비 약 900억원 축소된 영향이다. 연간 계리적 가정 변경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았던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투자이익은 보험금융손익 감소에 따라 전년동기 -87억원 대비 흑자 전환한 572억원을 기록했다. 신계약 CSM은 18% (YoY) 감소한 5,846억원이었는데, APE는 37% (YoY) 증가했으나 연금상품 비중 상승에 따른 믹스 악화로 CSM 배수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영향이다. 기말 CSM은 전년말대비 1% 감소한 9조 1,091억원인데, 향후 VFA 조정폭이 줄어들면서 CSM은 순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말 예상 K-ICS 비율은 전년말대비 19%p 하락한 165%인데, 2025년 장기선도금리 25bp 하락에 따른 K-ICS 비율 9%p 하락, 시중금리 10bp 하락 시 2%p 내외의 하락이 예상되나 신계약 확보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중장기 목표 K-ICS 비율은 170~180% 수준인데, 2026년부터는 K-ICS 내부모형 적용 및 이에 따른 요구자본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투자의견 Outperform, 목표주가 3,200원 유지

한화생명에 대한 투자의견 Outperform과 목표주가 3,200원을 유지한다. 확연한 이익 증가세를 기록하고는 있으나, 기말 CSM 감소와 K-ICS 비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도 아직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향후 부정적 요인들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무적인 지표들은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의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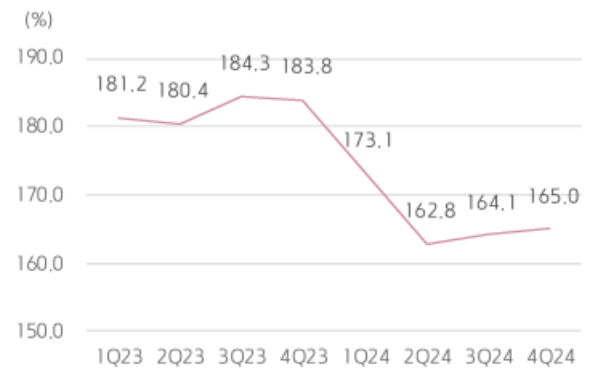
(십억원, 배)	2023	2024E	2025E
보험이익	650.9	506.3	614.1
투자이익	90.4	390.7	407.6
영업이익	741.3	897.0	1,021.7
세전이익	753.4	904.9	1,003.6
당기순이익	616.3	720.6	752.7
ROE	5.5	0.0	0.0
ROA	0.4	0.0	0.0
EPS	710	830	867
BPS	13,111	11,899	13,480
PER	3.2	3.0	2.8
PBR	0.2	0.2	0.2
DPS	150	0	0
배당수익률 (%)	5.3	0.0	0.0

CSM 기말 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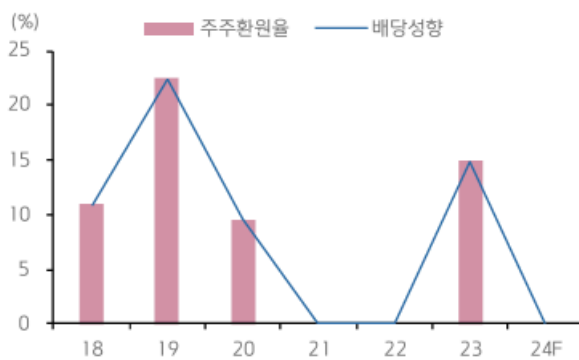
자료: 한화생명,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ICS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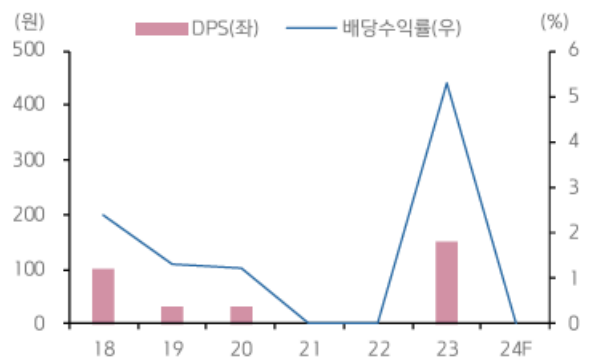
자료: 한화생명,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주환원율과 배당성향



자료: 한화생명,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DPS와 배당수익률



자료: 한화생명,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